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01-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6년 인공지능 인식조사]

일상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관심과 체감 역대 최고...
친근감 과반이나 문제 대처 준비는 여전히 미흡

2026. 10. 14.

담당자 안유진 인턴연구원

e-mail | yujin.haley.an@gmail.com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인공지능 관심도·사용 실태 및 영향력

**인공지능에 관심 있고(84%), 기술 발전 체감해(85%)...모두 조사 이래 최고치
연령, 학력, 소득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관심도와 체감도 함께 상승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절반 이상(52%)은 기술 발전 체감**

생성형 AI가 검색, 학습, 업무 등 일상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매일 쓰는 플랫폼에도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ChatGPT를 바로 불러 쓸 수 있게 되었고, 네이버나 구글 검색에서는 AI가 요약한 답변이 검색 결과와 함께 제공된다. 최신 스마트폰에도 AI 비서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생성형 AI는 별도의 앱을 찾아 설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접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사용자 규모도 빠르게 커져, [올해 상반기 국내 ChatGPT 앱의 월평균 사용자는 2,324만 명으로 1년 새 986만 명 늘었고, 구글 제미니도 779만 명으로 681만 명 증가](#)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은 2020년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추적해 왔다. 일상 속 AI 접점이 넓어지는 가운데, 2026년 8월 7일~10일에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84%)과 기술 발전을 체감하는 사람(85%)은 모두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2020년 첫 조사 당시 78%에서 2023년 71%, 2024년 79%, 2025년 75%로 70%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9%포인트 증가한 84%로 처음 80%대에 올라섰다. 작년에는 18~29세에서만 관심도가 올랐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지만, 올해는 연령뿐 아니라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관심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특히 30대의 관심은 72%에서 90%로 18%포인트 증가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60대(71%→8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77%→88%)에서도 각각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체감하는 사람(85%) 역시 작년(76%)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 64%에서 출발한 체감도는 2024년 78%까지 꾸준히 오른 뒤 작년에 소폭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올라 조사 이래 가장 높다. 체감도 역시 모든 연령대, 학력, 소득 집단에서 증가했다. 18~29세는 98%가 기술 발전을 체감한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도 56%로 작년(40%)보다 크게 늘었다. 작년 63%로 가장 낮았던 60대의 체감도는 올해 7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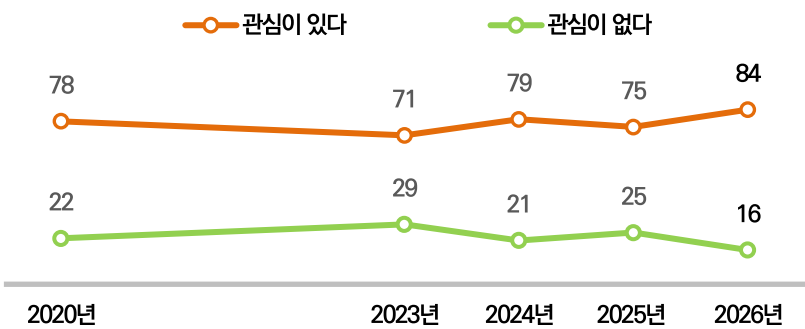
다만 학력과 소득에 따라 체감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학 재학 이상은 93%가 기술 발전을 체감하지만 고졸 이하는 76%가 체감한다고 답해 17%포인트(작년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600만원 이상(92%)과 300만원 미만(79%) 응답자 사이에 13%포인트 차이(작년 14%포인트)를 보인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은 10명 중 9명(91%)이 기술 발전을 체감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작년에는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 중 44%만 기술 발전을 체감했지만, 올해는 52%로 절반을 넘었다. 인공지능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 그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기술 발전을 체감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10명 중 7명 이상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보이고 기술 발전을 체감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접하는 기술이 된 것이다.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대다수(88~98%)가 기술 발전을 체감해 젊은 세대일수록 변화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체감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다’ 84%, 작년 대비 9%포인트 증가
2020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대 기록

(단위 : %)



모든 세대, 학력, 소득 집단에서 인공지능 관심도 상승
30대의 관심도가 18%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

(단위 : %)

	2025년 '관심 있다'	2026년 '관심 있다'	차이 (‘26-’25)	2025년 '관심 없다'	2026년 '관심 없다'	차이 (‘26-’25)
전체	75	84	+9%p	25	16	-9%p
연령						
18-29세	82	86	+4%p	18	14	-4%p
30대	72	90	+18%p	28	10	-18%p
40대	77	81	+4%p	23	19	-4%p
50대	74	81	+7%p	26	19	-7%p
60대	71	82	+11%p	29	18	-11%p
70세 이상	77	83	+6%p	23	17	-6%p
학력						
고졸이하	70	78	+8%p	30	22	-8%p
대재이상	78	89	+11%p	22	11	-11%p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0	77	+7%p	30	23	-7%p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77	88	+11%p	23	12	-11%p
600만 원 이상	78	86	+8%p	22	14	-8%p

질문: 인공지능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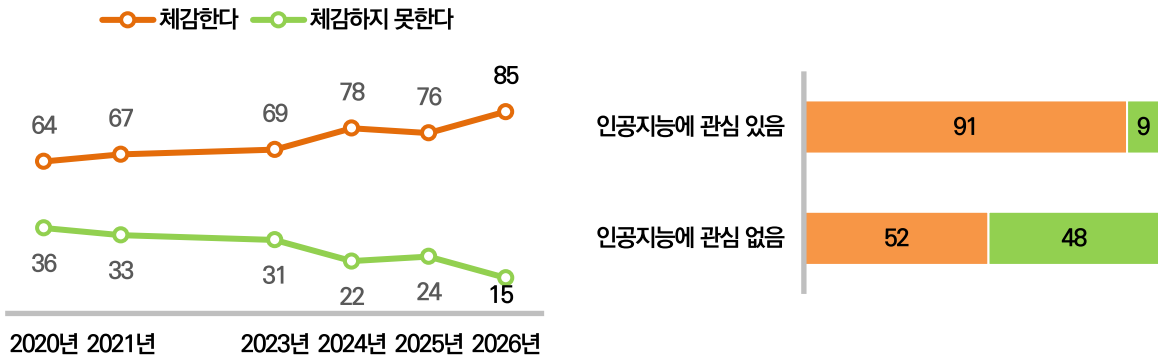
비고: 관심 있다(매우+대체로), 관심 없다(전혀+별로) 응답 제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1. 14. ~ 16. //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체감한다' 85%, 조사 이래 최고치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절반 이상(52%)은 기술 발전 체감

(단위 : %)



모든 세대, 학력, 소득 구분 없이 기술 발전 체감도 상승 18-29세 98% 체감, 60대는 작년 대비 13%포인트 증가

(단위 : %)

		2025년 '체감한다'	2026년 '체감한다'	차이 (‘26-’25)	2025년 '체감 못한다'	2026년 '체감 못한다'	차이 (‘26-’25)
전체		76	85	+9%p	24	15	-9%p
연령	18-29세	91	98	+7%p	9	2	-7%p
	30대	81	94	+13%p	19	6	-13%p
	40대	82	88	+6%p	18	12	-6%p
	50대	74	78	+4%p	26	22	-4%p
	60대	63	76	+13%p	37	24	-13%p
	70세 이상	70	77	+7%p	30	23	-7%p
학력	고졸이하	70	76	+6%p	30	24	-6%p
	대재이상	80	93	+13%p	20	7	-13%p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8	79	+11%p	32	21	-11%p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78	84	+6%p	22	16	-6%p
	600만 원 이상	82	92	+10%p	18	8	-10%p

질문: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비고: 체감한다(매우+대체로), 체감하지 못한다(전혀+별로) 응답 제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1. 14. ~ 16. // 2021. 3. 19. ~ 22. //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10명 중 8~9명(85%) 생성형 AI 사용... 주 1회 이상 사용도 62% 18~29세는 96% 사용하고, 60세 이상도 10명 중 8명 가까이 사용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도 절반 이상(53%)은 생성형 AI 사용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체감이 커진 만큼, 실제 사용도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ChatGPT, 제미니, 클로드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85%로, 10명 중 8~9명에 이른다.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21%, 주 3~4일은 19%, 주 1~2일은 22%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성형 AI를 쓰는 사람이 62%에 달한다. 반면 과거에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사람은 4%,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은 11%에 그친다. 문항 형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올해 1월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생성형 AI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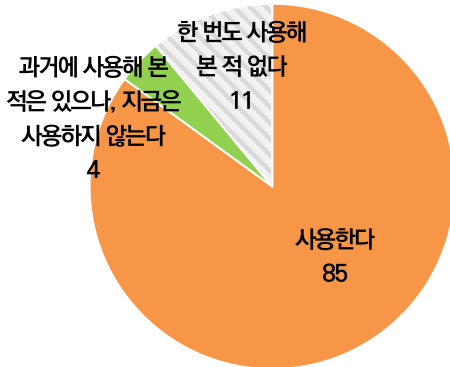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18~29세의 96%, 30대의 91%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60세 이상(77%)에서도 10명 중 8명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 생성형 AI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도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빈도에서는 연령 차이가 나타난다.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비율은 30대가 41%, 18~29세가 36%로 높은 반면, 60대는 6%, 70세 이상은 9%에 그친다. 고령층도 대부분 생성형 AI를 쓰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쓰기보다는 필요할 때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과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대학 재학 이상은 93%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29%는 주 5일 이상 사용하지만, 고졸 이하의 사용률은 77%, 주 5일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12%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용률과 이용빈도도 함께 높아진다. 300만 원 미만은 78%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14%가 주 5일 이상 사용하지만, 600만 원 이상은 91%가 사용하고 30%가 주 5일 이상 사용한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96%), 학생(94%), 사무직(94%)의 사용률이 높고, 전업주부는 75%로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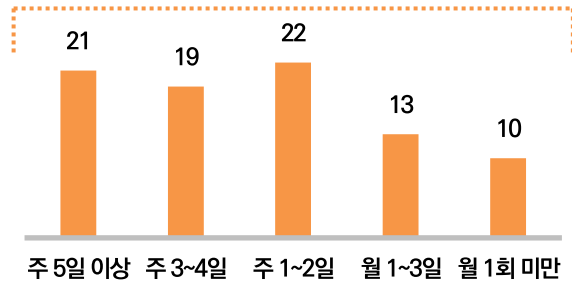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은 92%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25%는 주 5일 이상 사용한다.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 이상(53%)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한 달에 몇 번 이하로 가끔 사용하며,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2%). 관심 있는 사람의 25%가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용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생성형 AI '사용한다' 85%, 주 1회 이상 사용 62%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10명 중 2명(21%)

(단위: %)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853명



모든 세대에서 과반이 생성형 AI 사용, 60세 이상도 77%
주 5일 이상 사용은 30대 41%, 60대 6%로 연령별 차이 커

(단위: %)

	사례수 (명)	사용 빈도					사용한다	과거에 사용해 본 적은 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 5일 이상	주 3~4일	주 1~2일	월 1~3일	월 1회 미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다	
전체	(1,000)	21	19	22	13	10	85	4	11
연령									
18~29세	(147)	36	31	17	6	6	96	2	2
30대	(151)	41	24	15	8	4	91	2	7
40대	(168)	27	13	26	10	13	88	4	8
50대	(192)	13	18	21	20	12	84	4	12
60대	(180)	6	16	27	15	13	77	4	19
70세 이상	(162)	9	15	23	19	11	77	6	16
학력									
고졸이하	(482)	12	14	20	17	13	77	5	18
대재이상	(518)	29	24	23	10	7	93	3	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48)	14	17	22	14	11	78	5	17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76)	21	19	22	14	11	88	4	8
600만 원 이상	(276)	30	22	21	11	8	91	2	7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있다	(836)	25	22	23	14	8	92	2	6
관심없다	(164)	2	6	12	12	21	53	11	36

질문: 챗GPT, 구글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등 대형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평소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비고: 사용한다(주 5일 이상 + 주 3~4일 + 주 1~2일 + 월 1~3일 + 월 1회 미만)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생성형 AI 사용자 4명 중 3명(74%)은 무료로만 사용 유료 사용은 18-29세(41%)와 30대(44%), 대재 이상(37%)에서 높아 주 5일 이상 사용자는 절반 이상(54%)이 유료로 이용

생성형 AI 사용은 넓게 퍼졌지만, 대부분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생성형 AI 사용자 중 74%는 유료 서비스 없이 무료로만 사용한다. 개인적으로 유료 가입을 했거나 회사·학교 등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사람은 26%다.

18-29세(41%)와 30대(44%)에서 유료 사용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33%)를 지나 50대(19%), 60대(10%), 70세 이상(10%)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60세 이상 사용자는 10명 중 9명이 무료로만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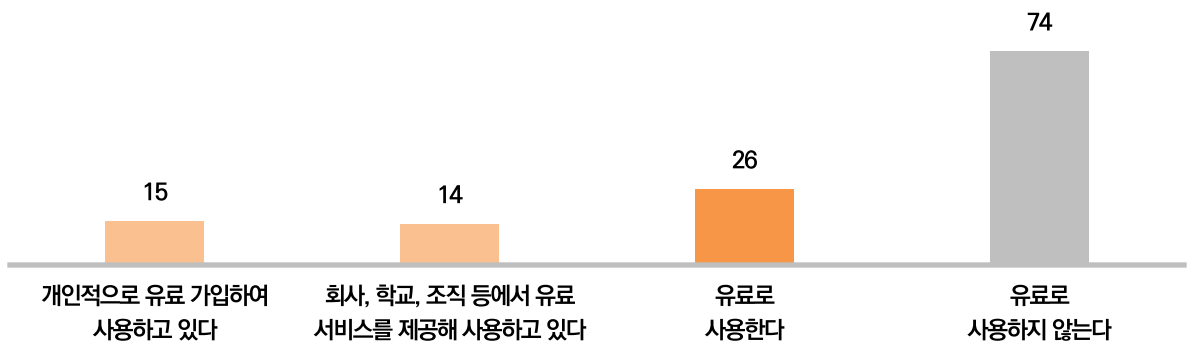
학력, 소득, 직업에 따른 차이도 크다. 대학 재학 이상은 37%가 유료로 사용하지만, 고졸 이하는 13%만 유료로 사용한다.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도 37%가 유료로 사용해, 300만원 미만(19%)의 두 배 수준이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50%), 학생(45%), 사무직(44%)의 유료 사용 비율이 높은 반면, 전업주부(9%)와 무직·퇴직·은퇴(9%)는 10% 미만이다.

유료 사용 경로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18-29세와 30대는 개인적으로 유료 가입한 비율(27%, 31%)이 회사·학교 등에서 제공받는 비율(각 19%)보다 높다. 반면 40대는 회사·학교 등에서 제공받는 비율(21%)이 개인 가입(14%)보다 높다. 직장지위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2%가 회사 등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비정규직은 8%로 차이가 난다.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유료 이용 비율도 높다.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54%)이 유료로 이용하며, 이 중 개인 유료 가입 비율이 38%에 이른다. 반면 주 1~4일 사용자는 22%, 주 1일 미만 사용자는 10%만 유료로 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가끔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료 가입 없이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성형 AI 사용자 74%는 '무료로만 사용' 유료 사용자는 26%... 개인 가입 15%, 회사·학교 등 제공 14%

(단위: %)



질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유료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유료 가입' + '회사·학교·조직 등에서 유료 서비스 제공' 중 하나 이상 응답한 사람

응답자 수: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853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유료 사용은 30대(44%)와 18-29세(41%)에서 가장 높아 60세 이상 사용자 10명 중 9명은 무료로만 사용

(단위 : %)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사례수 (명)	개인적으로 유료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회사·학교·조직 등 제공 서비스 사용하고 있다		유료로 사용한다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14	26	74				
전체 (853)									
연령	18-29세 (141)	27	19	41	59				
	30대 (138)	31	19	44	56				
	40대 (148)	14	21	33	67				
	50대 (162)	9	11	19	81				
	60대 (139)	5	6	10	90				
	70세 이상 (125)	5	5	10	90				
학력	고졸이하 (371)	8	5	13	87				
	대재이상 (481)	21	21	37	63				
직업	관리·전문직 (99)	25	30	50	50				
	사무직 (164)	24	26	44	56				
	판매·서비스직 (130)	15	9	24	76				
	농림어업직 (16)	12	6	18	82				
	기술·기능·노무직 (117)	10	6	15	85				
	전업주부 (118)	3	6	9	91				
	학생 (68)	27	22	45	55				
	무직/퇴직/은퇴 (140)	7	2	9	91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18)	18	22	37	6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00)	9	8	14	86				
	고용주 및 자영업자 (82)	24	12	36	64				
	비경제활동 (328)	10	7	16	8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72)	11	9	19	81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29)	16	11	24	76				
	600만 원 이상 (251)	19	21	37	63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있다 (766)	17	14	28	72				
	관심없다 (86)	3	8	10	90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빈도	주 5일 이상 (209)	38	23	54	46				
	주 1~4일 (409)	10	13	22	78				
	주 1일 미만 (234)	3	7	10	90				

질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유료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유료사용자는 '개인적으로 유료 가입' + '회사·학교·조직 등에서 유료 서비스 제공' 중 하나 이상 응답한 사람

응답자 수: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853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인공지능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58%, 3년 연속 상승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69%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생성형 AI를 자주 쓸수록 내 삶에 대한 긍정 평가 높아

인공지능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8%로, 작년(52%)보다 6%포인트 늘었다. 2023년 39%였던 긍정 인식은 2024년 50%, 2025년 52%에 이어 올해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입장은 2023년 57%에서 올해 38%까지 줄었다. 판단을 유보하던 사람들이 점차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로 여전히 적다.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69%로, 작년(70%)과 비슷하다. 2023년 61%에서 2024년 66%, 2025년 70%로 오르던 흐름이 올해는 주춤했다. 여전히 사회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나의 삶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2023년 22%포인트에서 올해 11%포인트로 좁혀졌다. 인공지능의 효용을 사회적 차원의 기대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직접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삶’에 대한 긍정 인식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18-29세(71%)와 30대(64%)가 높고, 특히 30대는 작년(53%)보다 11%포인트 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커졌다. 대학 재학 이상은 55%에서 68%로 13%포인트 늘었지만, 고졸 이하는 46%에서 47%로 비슷해 두 집단의 차이가 작년 9%포인트에서 올해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 49%,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61%, 600만 원 이상 64%로,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 인식도 높다. 생성형 AI 사용 빈도에 따른 차이는 더 뚜렷하다.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84%가 인공지능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주 1~4일 사용자 69%, 주 1일 미만 사용자 43%로 낮아지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14%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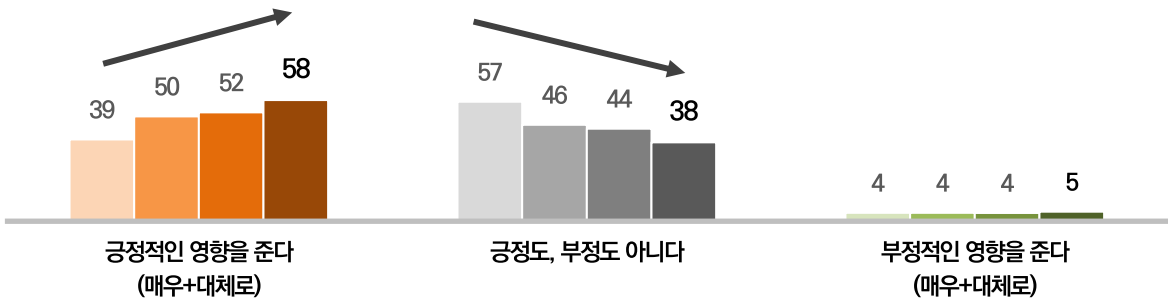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작년과는 다소 변화가 있다. 70세 이상은 78%로 여전히 연령대 중 가장 높지만 작년(86%)보다 8%포인트 줄었고, 60대도 77%에서 72%로 낮아졌다. 고졸 이하(73%→67%)와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71%→63%)에서도 긍정 인식이 줄었다.

‘나의 삶’ 긍정 인식 꾸준히 늘며 ‘우리 사회’와의 차이 좁혀져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입장은 2023년 57%에서 올해 38%로 감소

(단위 :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공지능 기술이 나의 삶에...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질문: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귀하의 삶 /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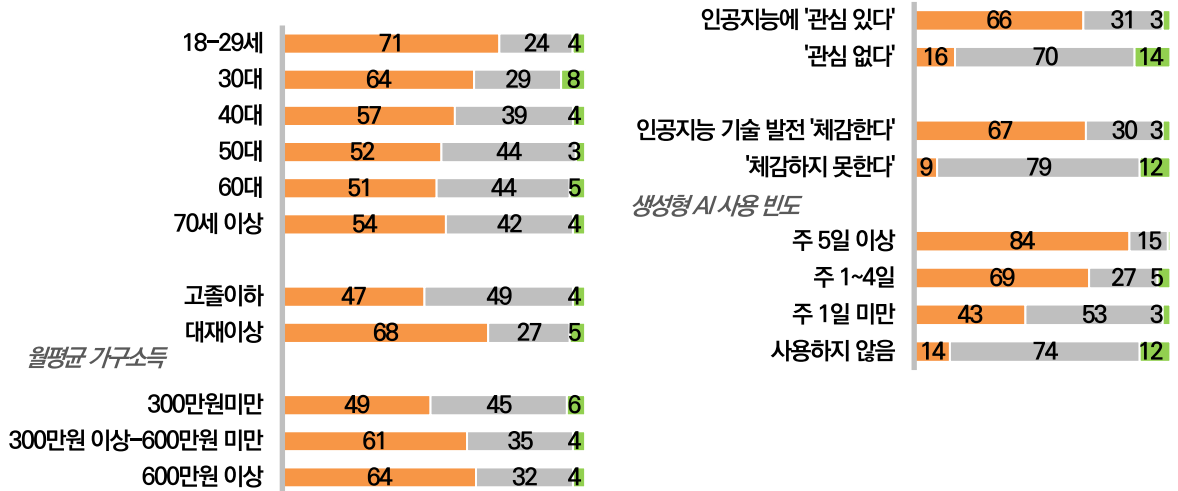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나의 삶 긍정 인식, 학력 간 차이 21%포인트로 벌어져 생성형 AI 주 5일 이상 사용자 84%는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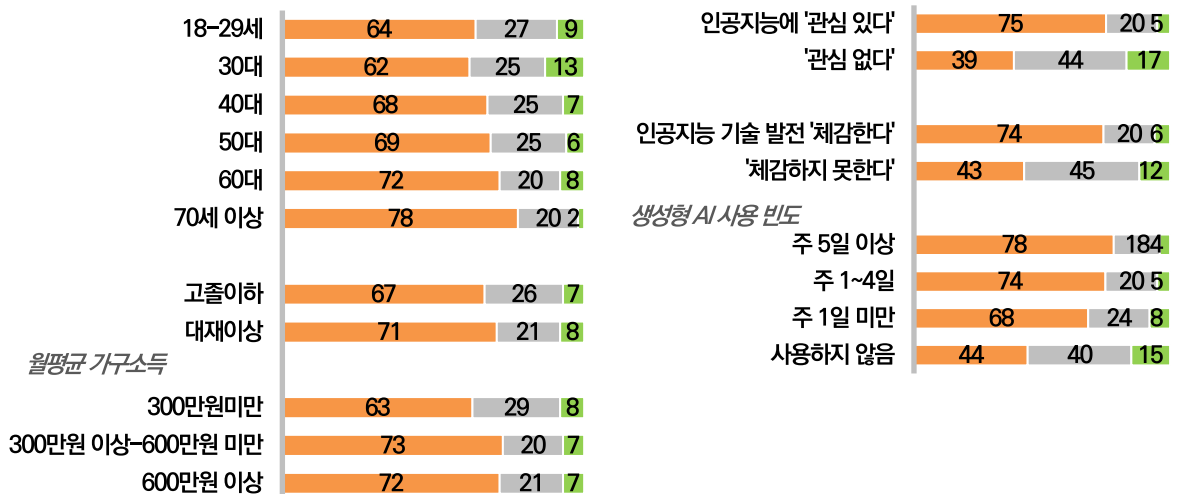
(단위 : %)

인공지능이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매우+대체로)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매우+대체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질문: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귀하의 삶 /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감정과 변화 예상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호기심(83%)’과 ‘기대감(79%)’ 느껴…긍정적 감정 우세
친근감 처음으로 과반(51%), 의심스러움도 꾸준히 늘어 66%
18-29세, 연령대 중 기대감은 낮고 의심스러움·적대감은 높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호기심(83%)’과 ‘기대감(79%)’이다. 동시에 ‘의심스러움(66%)’과 ‘두려움(58%)’을 느낀다는 사람도 과반이다. 인공지능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51%)도 절반을 넘은 반면,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은 35%로 상대적으로 적다. 2023년부터 네 차례 조사한 결과, 호기심과 기대감은 매년 8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두려움, 적대감도 큰 변화가 없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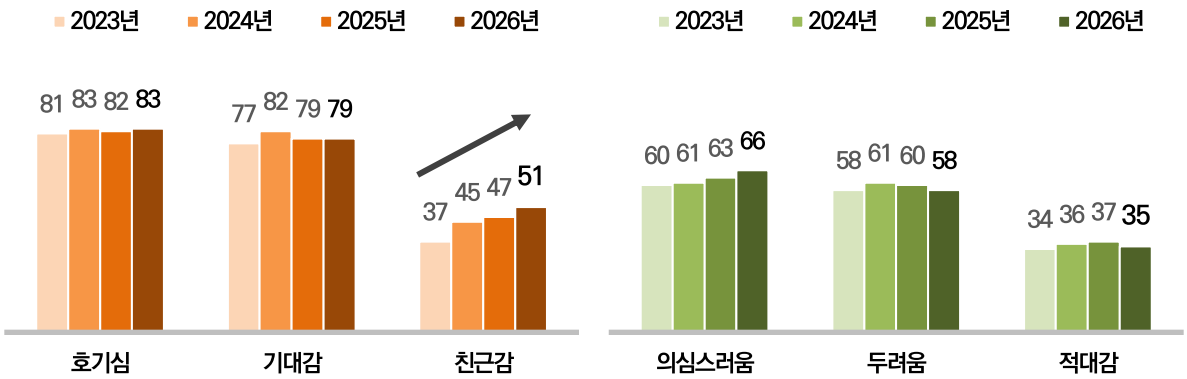
변화가 나타난 감정은 친근감과 의심스러움이다. 인공지능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은 2023년 37%에서 2024년 45%, 2025년 47%로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의심스러움도 2023년 60%에서 올해 66%로 조금씩 늘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친근함과 경계심이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느끼는 감정에는 차이가 있다. 18-29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기대감은 낮고, 의심스러움과 적대감은 높다. 18-29세의 기대감은 74%로 70세 이상(84%)보다 10%포인트 낮은 반면, 의심스러움(76%)과 적대감(41%)은 60세 이상(의심스러움 55~61%, 적대감 25~34%)보다 다소 높다. 작년과 비교해도 18-29세의 감정 변화가 두드러진다. 의심스러움(65%→76%), 두려움(46%→56%), 적대감(32%→41%)이 모두 10%포인트 안팎 늘었고, 친근감(44%→52%)도 함께 늘었다. 작년 조사에서 18-29세는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세대였지만, 올해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인공지능을 가장 가까이 쓰는 세대가 그만큼 다양한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사용 정도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차이가 크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호기심(88%), 기대감(84%), 친근감(56%)을 느끼는 비율이 관심 없는 사람(63%, 53%, 26%)보다 크게 높다. 반면 의심스러움(관심있다 67%, 관심없다 58%), 두려움(관심있다 59%, 관심없다 56%), 적대감(관심있다 34%, 관심없다 38%)은 관심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생성형 AI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친근감도 높다.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72%가 친근감을 느끼지만, 주 1~4일 사용자는 53%, 주 1일 미만 사용자는 42%로 낮아진다. 인공지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관심과 사용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우려는 집단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호기심·기대감 80% 안팎 유지, 친근감은 3년새 37%에서 51%로
의심스러움도 2023년 60%에서 올해 66%로 꾸준히 늘어

(단위: %)



18~29세, 기대감은 가장 낮고 의심스러움·적대감은 가장 높아
생성형 AI 주 5일 이상 사용자 72%는 인공지능에 친근감 느껴

(단위: %)

2026년 조사	사례수 (명)	호기심	기대감	친근감	의심스러움	두려움	적대감
전체	(1,000)	83	79	51	66	58	35
연령							
18~29세	(147)	81	74	52	76	56	41
30대	(151)	83	77	51	73	52	35
40대	(168)	83	81	50	69	64	38
50대	(192)	81	82	49	63	58	36
60대	(180)	83	76	47	55	57	25
70세 이상	(162)	88	84	56	61	62	34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 있다	(836)	88	84	56	67	59	34
관심 없다	(164)	63	53	26	58	56	38
인공지능 기술발전 체감도							
체감한다	(846)	86	83	55	68	59	35
체감하지 못한다	(154)	67	60	28	52	50	31
생성형 AI 사용 빈도							
주 5일 이상	(209)	89	86	72	65	55	28
주 1~4일	(409)	87	82	53	70	58	36
주 1일 미만	(234)	83	79	42	62	63	37
사용하지 않음	(147)	67	62	29	61	54	36

질문: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해, 다음 각각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비고: '감정을 느낀다(매우 많아+어느 정도)' 응답만 제시.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인공지능, ‘경제 성장(82%)’과 ‘삶의 질 향상(79%)’에 도움 될 것 ‘사생활 침해(78%)’ 우려 긍정 전망만큼 높고, ‘인간 능력 저하’ 우려 3년 새 9%포인트 늘어 생성형 AI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긍정 전망 높지만, 우려는 비슷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나타날 긍정적인 변화 중에서는 ‘AI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다. 이어서 ‘AI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79%)’, ‘AI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79%)’ 순이다. 세 항목 모두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었고,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2023년 72%에서 올해 79%로 꾸준히 높아졌다.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난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질 것이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78%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는 69%,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능력은 저하될 것이다’는 62%다. 이 중 인간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2023년 53%, 2024년 52%에서 작년 59%, 올해 62%로 2년 연속 늘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23년 43%에서 올해 33%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 모두에 높은 공감을 보인다. 18~29세의 86%가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사생활 침해(83%)와 인간 능력 저하(65%)에 대한 우려도 높은 편이다. 빈부격차 우려는 40대(77%)와 60대(75%)에서 높은 반면, 70세 이상은 56%로 연령대 중 가장 낮다. 학력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졸 이하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인류 혜택(74%)과 삶의 질 향상(73%)에 동의한다.

생성형 AI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주 5일 이상 사용자 90%, 주 1~4일 사용자 83%, 주 1일 미만 사용자 74%로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는 주 5일 이상 사용자 81%, 주 1~4일 79%, 주 1일 미만 76%로 사용 빈도와 관계없이 비슷하다. 인공지능을 자주 쓰는 사람은 기대가 더 크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사용 정도와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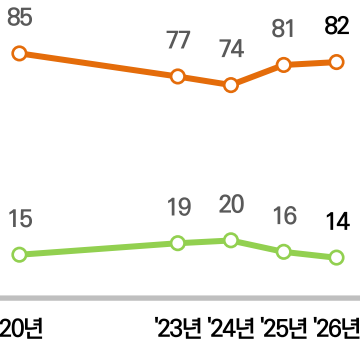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성장', '인류 혜택', '삶의 질 향상' 기대 여전히 높아
'삶의 질 향상'은 2023년 72%에서 올해 79%로 꾸준히 늘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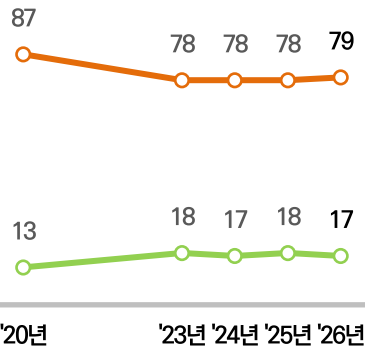
긍정적인 변화

AI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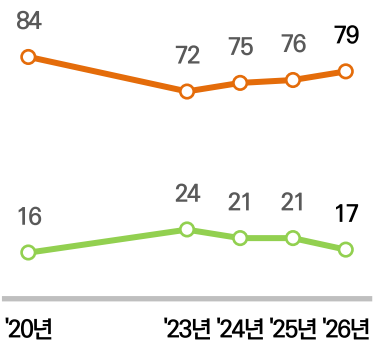
—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AI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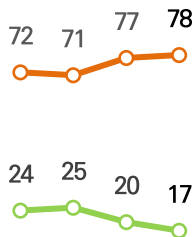


사생활 침해·인간 능력 저하 우려, 2023년 대비 증가
'인간 능력 저하' 동의와 비동의 차이, 2023년 10%포인트에서 올해 29%포인트로 벌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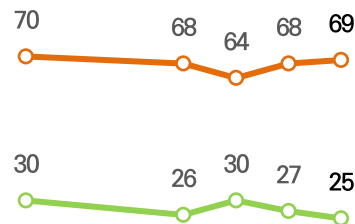
(단위: %)

부정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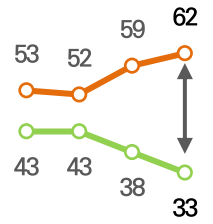
AI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능력은 저하될 것이다



질문: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별로) 응답 제시함. '모름'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2020년 조사는 '모름' 보기 없이 질문.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0. 1. 14. ~ 16. //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18-29세 86% '삶의 질 높아질 것'...연령대 중 가장 높아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인류 혜택(51%)·삶의 질 향상(54%) 기대가 절반 수준

(단위 : %)

	사례수 (명)	AI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AI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능력은 저하될 것이다
전체	(1,000)	82	79	79	78	69	62
연령							
18-29세	(147)	79	82	86	83	68	65
30대	(151)	73	74	79	77	69	61
40대	(168)	84	80	82	82	77	65
50대	(192)	82	79	76	75	68	60
60대	(180)	86	76	75	78	75	61
70세 이상	(162)	85	81	76	73	56	62
학력							
고졸이하	(482)	81	74	73	75	66	61
대재이상	(518)	82	83	84	81	71	6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48)	79	74	72	76	65	61
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376)	84	80	83	81	72	64
600만 원 이상	(276)	81	83	82	78	69	61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있다	(836)	85	84	83	80	71	63
관심없다	(164)	64	51	54	70	59	61
AI가 내 삶에 주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578)	89	88	90	78	70	62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376)	75	69	67	79	68	64
부정적인 영향	(45)	47	36	30	70	61	58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주는 영향							
긍정적인 영향	(691)	90	88	87	79	71	61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236)	67	62	62	72	63	62
부정적인 영향	(73)	48	48	47	87	66	72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빈도							
주 5일 이상	(209)	86	86	90	81	72	63
주 1~4일	(409)	86	85	83	79	71	67
주 1일 미만	(234)	79	76	74	76	66	60
사용하지 않음	(147)	68	56	57	74	62	53

질문: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동의한다(매우+대체로) 응답만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대처 준비 ‘잘하지 못하고 있다’ 49%, 4년째 미흡 평가 우세 AI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평가는 작년과 비슷 18-29세 ‘준비 미흡’ 59%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대처할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잘 하고 있다(24%)’의 두 배에 달한다. 판단을 유보한 ‘모르겠다’는 27%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는 2023년 57%, 2024년 60%에서 작년 50%로 줄었지만,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4년째 우세하다. **올해 1월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며 AI 안전과 신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대처 준비에 대한 평가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는 인공지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쓰는 집단에서 더 높다. 18-29세는 59%가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작년(49%)보다 10%포인트 늘었다. 앞서 18-29세에서 의심스러움,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과 같은 흐름이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3%)이 고졸 이하(45%)보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생성형 AI를 주 5일 이상 사용하는 사람도 절반 이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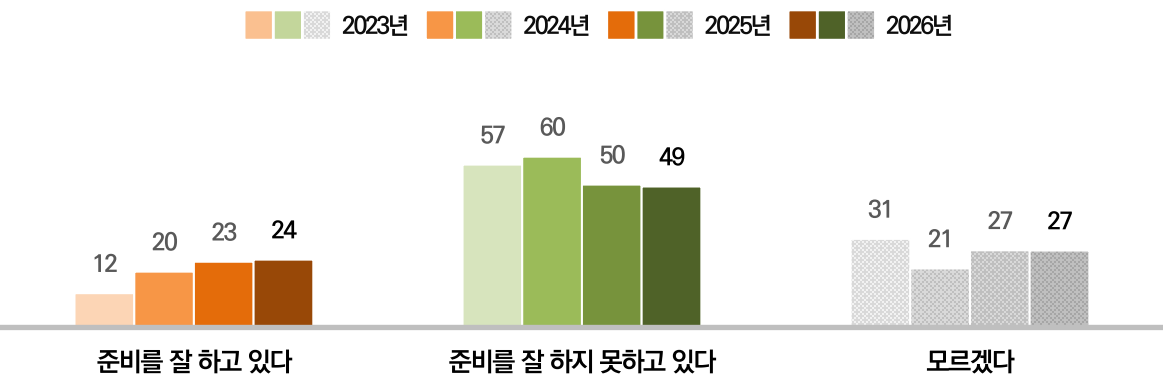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체감은 조사 이래 가장 높고, 생성형 AI는 10명 중 8~9명이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가 되었다. 인공지능에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의심스러움과 인간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고,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 ‘모두의 AI’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사업자로 선정된 SKT, KT, 카카오 컨소시엄이 10월 중 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와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 활용 격차 해소처럼 확산에 따른 문제에 대비하는 일도 함께 중요해질 것이다.

‘준비 미흡’ 평가, 작년(50%)과 비슷한 49%로 2년째 제자리

‘잘 하고 있다’는 2023년 12%에서 올해 24%로 늘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

(단위: %)



18~29세 59%, 대재 이상 53%가 ‘준비 미흡’ 평가

인공지능에 관심 없는 사람 46%는 ‘모르겠다’

2026년 8월 조사		사례수 (명)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전체		(1,000)	24	49	27
연령					
	18~29세	(147)	19	59	22
	30대	(151)	18	53	29
	40대	(168)	27	51	22
	50대	(192)	23	45	32
	60대	(180)	26	46	29
	70세 이상	(162)	29	45	26
학력					
	고졸이하	(482)	24	45	31
	대재이상	(518)	23	53	23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있다	(836)	26	51	23
	관심없다	(164)	12	42	46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빈도					
	주 5일 이상	(209)	26	54	20
	주 1~4일	(409)	27	51	23
	주 1일 미만	(234)	21	47	31
	사용하지 않음	(147)	15	42	43

질문: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이전에 없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처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4. 21. ~ 24. // 2024. 6. 27. ~ 7. 1. // 2025. 6. 27. ~ 30. // 2026. 8. 7. ~ 10.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7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4,548명, 조사참여 1,63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61.1%)
조사일시	• 2026년 8월 7일 ~ 8월 1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